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2017. 8. 8.



대통령 직속
일 자리 위 원 회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2
III. 추진 과제	3
1.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3
2. 일자리 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	6
3. 일자리 중심 기관 평가·운영	17

- [참고] 1. 세부 액션플랜
2. 부처별 이행계획

I. 추진 배경

□ 일자리 위기 상황 ⇒ 정책과 제도의 전환 필요

- 고용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의 안정성이 약화

<취업유발계수 추이(명/10억원)>



<저임금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15년)>



- 새 정부는 이에 대응한 핵심 경제비전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제시
 - 정책의 중심을 성장률·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 추진

- 일자리 경제는 기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데 중점
 -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법제, 통계 등 인프라를 강화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각종 평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정비하여 정책 추진력 확보
- 개별 사업 참여자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민간의 의사결정 구조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경제·사회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창출, '국민에게 안정적 삶의 터전' 제공

II. 추진 방향

비전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실현

정책
목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추진
전략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정부지원
체계 개편

일자리 중심
기관 평가

추진
과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 정부·지자체의
일자리정책
전담조직

◇ 입법

◇ 통계

◇ 홍보

◇ 예산
· 고용영향평가
· 일자리사업 혁신
·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 등

◇ 세제

◇ 투자유치제도

◇ 정책금융

◇ 조달·공공계약

◇ 인허가

◇ 인센티브·포상

◇ 정부업무평가

◇ 지자체 합동평가

◇ 공공기관
평가운영

Ⅲ. 추진 과제

1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입법·통계·홍보 등 정책 인프라를 일자리 중심으로 정비

① [일자리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

-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산업·지역의 민·관 합동 일자리 정책을 수립·조정·협의를 실천
 -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및 정책 추진 동력 확보
 - * (전문위)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 구성
 - * (특별위) 특정 현안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
- **일자리신문고(www.jobs.go.kr)** 개설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 고충 해결 및 정책 아이디어 수렴
 - * 총 11,472건 접수(6.4~8.3일): 비정규직 관련 7,061건, 공공부문 2,154건, 일자리창출 454건 등

② [정부·지자체 조직] 일자리 정책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 지정 및 보강**
 - 부처협의를 거쳐 전담부서에 **일자리 총괄기능 및 명칭 부여**
 - 부처별 기능·인력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전담인력 보강**
 - * 관련 직제 및 조직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금년 중 시행
- 지역별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방향을 공유·전파하고 지역 일자리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일자리 조직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업무체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지역일자리 추진 관련 총괄·조정기능 부여**
 - *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수립·통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개정

③ [입법]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

- 5년간의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단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연계 관리로 **일자리 법안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 국정과제 입법계획에 반영된 일자리 법안은 추진시기별 정부입법계획에 빠짐 없이 반영하여 추진상황 중점관리
- **일자리 입법에 대해서는 사전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등 적극 지원**
 - 법률은 '18년까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집중관리하고, 하위법령은 입법절차 간소화를 통해 '18년 상반기 신속 정비
- 취업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학력차별 **법령* 일괄정비**
 - * (현행)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 자격취득 요건으로 인정 → (개선) 독학사,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자격취득 요건으로 인정
- **고용의 양·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령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법령 보완 권고**
 - 고용효과가 클 경우 **규개위·법제처 심사 Fast-track** 지원

④ [통계] 통계기반 일자리 정책·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자리 양과 질, 동향 등을 상시 파악·점검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운영**

일자리 상황판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일자리 상황	①고용률 ②취업자수* ③실업률 ④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신설법인수) ④고용보험 신규취득
일자리 질	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 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가입률 ⑥근로시간
경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수출입액

* 세부지표로 30대 기업별 취업자,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추가

- 일자리 동향·증감·이동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개발·개선** 추진
 - 기업등록부 DB구축, 행정자료 입수주기 단축(년→분기/월)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일자리 데이터 허브** 구축
 - 기업규모별, 산업별 등 **일자리 행정통계**를 **세분화**하고 일자리 증감·이동 분석이 가능한 **일자리 동향통계** 개발
- 지역단위 일자리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역통계지표 서비스 확대·개편**
 - 고용률, 실업률, 구인·구직수, 사업체수 등을 지역단위로 제공
- 국제기구(ILO, OECD, UN 등) 동향 및 국내실정을 반영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관련통계 작성

5 [홍보] 일자리 체감형 홍보 확산

- 각 부처 **사업 성과*** 발표, **현장 방문** 등을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 국민들이 일자리 관련 국정 운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 * (예시) 제도 신설로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간접 영향 포함 5년간 5만개 기대
- 공문서·민원서류·우체국 택배박스 등 국민생활 접점 매체,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일자리정책 슬로건*** 노출을 최대화
 - * 문구 예시: '단 1원의 국가 예산도 일자리로!', '노믹스는 일자리입니다'
- 주요 부처 중심 **일자리 홍보협의회**를 운영, 부처별 일자리 정책 홍보추진상황 및 보완사항 점검을 통한 홍보제언 제공
- **공익광고**(TV, 라디오)를 활용하여 일자리의 중요성 및 일자리 정책 등을 홍보('17.下~)

2 일자리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

◇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지원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유도

1. 예산 지원

(1) 사전 평가·편성 단계

1 고용영향평가 강화 →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예산사업은 평가대상 대폭 확대, **일자리 효과를 예산편성에 우선 고려**
 - (평가대상 확대) ①모든 일자리 사업 ②연간 100억원 이상 R&D, SOC, 조달사업에 대해 평가 실시(249 → 1,000개 내외)
 - * 매년 대상사업을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부처 협의)
 - (예산연계 강화) 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등급부여 → **예산 증감**
 - * (예시) 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하여 5단계 등급 부여 → ①A등급은 예산 증액 ②E등급은 예산 감액 ③신규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 등
 - 기타 비일자리 사업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지표로 활용
 - (평가 품질) 부처 자체평가에서 **노동연구원 전담평가**로 변경, 산출식 지속 개선 등을 통해 **부처 부담 완화 및 정확성 제고**
 - * 산출기준(산업별 고용계수) 세분화, 주요사업(일자리사업 전체) 질적 고용효과 제시 등
- **주요정책은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유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 구성**, 평가 소과정에 **부처 참여** 등을 통해 **정확성 제고,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 등) 평가 강화
 -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컨설팅 제공** 및 평가결과 DB 구축(이행 우수부처는 정부업무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평가자 실명제 실시**를 통해 평가 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하고 **고용영향평가센터 인프라 강화**
 - * (관계부처) 고용부·기재부·과기부·산업부·여가부 (연구기관) 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은행, KDI, 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중앙·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 강화
 - (중앙정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 마련
 -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고용효과를 고려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일자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활용
 - (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추진
 - * ① 중앙-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 점검, ②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고용부는 지자체 자체사업 성과관리 지원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질 높은 일자리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하여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편·운영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사업참여가 용이하도록 5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묶어 브랜드화하고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 ① 통합 사업안내·모집공고 실시, ② 취업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반복·중복참여 방지, ③ 참여 이후 직업훈련·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강화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 품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 * 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 ** 범부처 훈련사업의 주요사안을 논의하는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부 산하 훈련품질관리기관을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지원 전문기관으로 확대
 - (고용장려금 단순화) 다양한 장려금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온라인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 * 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 → 소관부처에 전달·조치, ② 평가과정에 각 부처 참여 보장, ③ 평가결과 DB 구축, ④ 일자리사업평가조직 확대 등 인프라 강화

③ 타당성 심사제도 개편

- 각종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시 일자리 지표 강화
 -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정책성 평가 내 포함된 일자리 지표(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배점을 상향 조정
 - * 고용효과 분석에 대한 평가방법론 개선도 병행(고용영향평가와 일관성 제고)
- <사업별 평가비중(현행)>**

 - ① (건설사업)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 ② (R&D)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 ③ (정보화사업)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④ (기타 재정사업)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예타 지침 개정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도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강화 가능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책성 항목에 평가지표로 추가
 -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신규 투자사업의 고용유발효과를 산출*하여 투자심사 자료로 활용
 - * 개별 사업별 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정

④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우선·집중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 지속
 - 지역발전특별회계(기재부), 보통교부세(행안부) 등 배분시 일자리 확충 노력 및 성과 등을 반영
 - * (지특회계) 지역별 자원배분시 인센티브 항목에 일자리 확충 반영
 - *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에 '일자리 확충노력' 지표 신설 등

[2] 집행단계

① 위탁·민자·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

- 정부 위탁사업, 민자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의 일자리 창출(양·질) 계획을 검토, 평가에 반영
 - 재정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담당인력에 대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점수에 반영
 - * (사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17년부터 평가점수에 종사자 임금 수준(14점)과 교육훈련계획(6점)을 반영 → 종사자 인건비가 10% 인상(연 2,067→2,245만원)
 - 위탁기관 선정 후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상담인력 처우개선 계획 실천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및 기관평가 반영
- 항만재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가점 부여**
-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평정 지표로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확대
 -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일자리 관련 항목이 旣 포함된 경우 가중치 상향, 없는 경우에는 신규 추가
 - * 현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나 평가지표로 '일자리 창출'은 배점이 낮거나 부재

② 개별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선 지원

- R&D,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지원대상 선정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일자리 창출 계획(양·질) 우수기업**을 우대
 - (R&D) 자체 **평가지침***을 개정하여 일자리 관련 R&D 사업 평가시 일자리 증가, 평균임금 등 **일자리 관련지표 비중 확대**
 - * 총 418개 평가대상 세부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유형은 약 90여개

- 일자리 관련 R&D 사업 중간·종료 성과 평가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가점 부여'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창업) 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보육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
 - TIPS,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창출계획**을 평가에 포함
 -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판로개척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유도
- (중소기업 지원) 수출, 국내판로, 인력, 컨설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재편**
 - * '17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1,347개, 16.6조원(중앙 288개, 14.3조원+지방 1,059개, 2.3조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지표에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지표**를 추가하고, 일자리 창출 수준에 따라 **가점부여 등 우대**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도입여부** 및 공유 수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차등지원**
 - * 경영성과급,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 기업이 근로자에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방식
- (기타 재정사업) 환경, 해양, 농식품 등 기타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에도 일자리 지표를 적극 도입
 - * (예시) ①전문 환경기업 육성사업 지침을 고용연계형으로 개정
②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기업지원 등에 일자리 지표 추가
③농업법인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농업법인 우선 선정 등

2. 세제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

< 주요 세제지원제도 재설계안 >

구분	제도	현행	개선
일자리 창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8% 공제	고용증대세제로 개편하여 고용 증가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적용 (1인당 300만원~2천만원)
	■ 외투기업	조세감면 누적한도: 투자금액 50%+고용기준 40%	투자금액 50%+고용기준 5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 공제	적용기한 연장(20년까지 3년) 적용대상 확대(중소→중견), 공제율 조정(중소 10→30% 중견 15%)
일자리 질 제고	■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임금증가를 초과분의 5%(중소-중견 10%)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0년까지 3년)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10→20%)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인원 당 중소 700만원 중견 500만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8년까지 1년)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1,000만원)
창업 지원	■ 창업 벤처· 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등록면허세 100% 감면	적용기한 연장(17년 일몰도래) 재산세 감면 100%로 확대
	■ 수도권 창업 기업 취득세 중과 제외	수도권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4.4%~8% (제외업종은 첨단업종 등 33개)	혁신형 중소기업 등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포함 검토

-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일몰 연장 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 금년도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제(국세 2건, 지방세 2건)에 대해 고용창출효과를 시범분석하고 연말까지 도입방안 마련

-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원) 요건 완화**

* (세무조사)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2%, 3백억원~1천억원 미만: 4%
** (담보 면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3% 이상 증가 → 2% 이상 증가

- 개인사업자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 계산에 가중치 부여(1명→1.5명)
- 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게 관세 관련 세정 지원 5대 패키지 제공
 - * 수출비중 20% 이상이고 전년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으로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

3. 투자유치제도

-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우선적으로 지원
 - 지방이전기업,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등 유사 인센티브 제도를 단일 제도로 통합하고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투자기업 전용 창구 개설
 -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등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 올해 말까지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종합개편방안」 마련

4. 정책금융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금융·보중에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신규 도입
 - 신청기준에 고용창출(유지) 지표* 도입, 우대 대출조건 등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무역금융 인센티브 제공
- * 직전년도 대비 고용증가율, 정부·지자체 고용우수기업 인증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정기교육 실시여부, 임금수준 등

- 중진공·신보·기보 등이 既 운영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확대
 - 신용등급, 매출액, 업력 등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서류 및 현장 평가 시 급여수준, 근무환경 등 질적 평가지표 추가 반영

<既 운영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신청·지원기준 완화>

구 분	현 행	개 편(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재육성형 자금)	· 평가등급 5등급 이내(신용대출) 또는 8등급 이내(담보대출) 지원	· 평가등급 6등급 이내(신용대출) 또는 9등급 이내(담보대출) 지원
신용보증기금 (고용·질 우수기업 보증)	· 비상장중소기업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설립후 5년 초과기업	· 비상장 및 코넥스기업으로 확대 · 업종별 매출기준 현실화 · 설립후 3년 초과기업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업무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 · 2개년 평균매출액증가율 15%이상 · 벤처, 이노비즈, 수출중소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 2개년 평균매출액증가율 10%이상 · 대상기업 제한기준 삭제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선 용자한도를 확대하고, 추가적 고용 창출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시행
 - * (예시) 정규직 고용 1명당 0.1~0.2%p 이자환급(최대 2.0%p)
- 국책은행 경영평가지 일자리 기업 지원실적 추가
 - 국책은행 경영평가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평가를 대폭 확대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증개지원대출제도 개편

5. 조달·공공계약

-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계획의 비중이 강화 되도록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상한 확대(3점→5점)
 - * 예) 고용창출 우수기업(3점)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2점)인 경우
⇒ 신인도 가점 : (현행) 3점만 반영 → (개선) 5점까지 반영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안부) 제정 시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계약 제도 개선
 - 상습·고액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감점을 부여하고, 중대 위반 행위자는 입찰 참여 제한
 -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노무비 구분관리 제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최소화 유도
 -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입찰 가점을 확대하여 근로환경 개선 유도
 - * 개선방안 예시(현행 → 개선) : 가족친화인증기업 (1.7점 → 2.0점), 일가양육 캠페인 참여기업 (0.5점 → 1.0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1.0점 → 2.0점)
- 벤처·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접근 애로 해소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여 업체간 출혈경쟁 방지
 - * 품질, 성능, 효율성 등이 유사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계약제도
 - **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 소규모 조달(2.1억원 미만)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을 상향 조정(80.495%→84.245%)하여 중소기업에 적정가격 보장
- 일정금액(2.1억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
 - * 고난도 기술능력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3배 이내로 허용
- 건설 엔지니어링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18)하고,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을 확대

6. 인·허가 등 제도개선

- 각종 특허, 허가, 인가시 일자리 우수 기업 우대
 - 일자리 계획서를 심사하여 일자리 창출·개선 효과가 큰 경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간단축, 평정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 비중 상향
 - 인·허가 발급 후에도 주기적(업종에 따라 1~3년)으로 일자리 창출·개선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이행실적 점검
- 공공택지 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도 일자리 우수업체에게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감면
- 일자리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발행한도 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 *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25% 범위내에서 추가발행 허용
- ※ 부처별 일자리중심 제도개선 관련 세부과제는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업무평가계획에 반영·점검할 계획

7.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 전년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탑'(신설) 수여
 -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금융, 마케팅 등 사업관련 지원뿐 아니라 출입국, 정부행사 등에서도 우대

구 분	인센티브(예시)
근로감독	○ 고용 창출 우수기업 정기 감독 면제(3년간)
금융	○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등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마케팅 지원	○ '고용탑' 기업 일괄 홍보(신문, 일자리위·관련부처 홈페이지 등), 인증패 수여 등
출입국	○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시 Express line 이용,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 사증·체류 우대, (공항 라운지 이용 우대 신설)
정부 행사 좌석배치	○ 기업 간담회 등 좌석 배치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선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협조)
시설 이용	○ 공공기관 운영 행사장, 박물관 등 시설 사용 우대 기타 각 부처 소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추가 발굴

- 일자리 창출 실적이 탁월한 민간기업인,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훈장·포장 등 정부포상 확대
 -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포상·홍보를 통해 CEO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 독려
 - * 신규채용 근로자수, 정규직 전환실적, 청년·여성 고용비중 등을 고려
 - 일자리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적극 선정·포상(기관별 인사상 우대조치 포함)

3 일자리중심 기관 평가·운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일자리정책의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

1 정부업무평가

- 각 부처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 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를 대폭 강화
 -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는 주요 국정과제(배점 50점)에 포함하여 평가
 - 국정과제 외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과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분야(배점 20점)를 신설하여 평가
 - 규제개혁 분야(배점 10점)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중심으로 평가

<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

2016년 평가	2017년 평가
① 국정과제 50 핵심개혁과제(과제별 최대 ±2) 협업(기관별 최대 ±1)	① 주요 국정과제(핵심정책과제 포함) 50 혁신관리 및 협업(기관별 최대 ±2)
② 규제개혁 20	② 일자리 창출 20
③ 정책홍보 20	③ 규제개혁(일자리 규제개혁 포함) 10
④ 정상화과제 10	④ 정책소통 10
⑤ 기관공통사항 ±10 (정부3.0 ±5, 성과관리 ±3, 특정시책 ±2)	⑤ 국민만족도 10
	⑥ 기관공통사항 ±10 (현안관리 ±3, 갈등관리 ±3, 인권개선 ±2, 특정시책 ±2)

- 신설된 '일자리 창출' 평가로 일자리 정책 이행을 집중 관리
 - (추진체계) 일자리위원회-국무조정실 합동으로 평가 수행
 - * 일자리위-국조실이 추천한 위원으로 '민관 합동 일자리과제 평가단' 구성 예정
 - (평가방식) '일자리로드맵' 등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 과제화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부처를 그룹화하여 상대평가
 - * 평가항목(안): ①대상과제 평가 + ②공통지표 평가 + ③가점 등

2 지자체 합동평가

-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18년도('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중 일자리 창출 평가를 강화
 - 일자리 창출 분야 별도 신설*로 지자체 일자리 창출 선도
 - * 전체 비중 : 4.3% → 9.1% ('17년 대비 212%)
 -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일자리 창출 분야 포함 특별교부세 지급)

< 주요 변경사항 >

'17년 합동평가' 분야	'18년 합동평가 분야(안)
① 중점과제 - 지역복지기반 확충(32%) - 일자리 창출(39%) - 재난안전 및 대기질개선(29%)	① 일자리 창출(신설) ② 중점과제 - 저출산 대책 - 축산방역강화 - 미래사회 선도
② 일반행정, ③ 사회복지 ④ 보건위생, ⑤ 지역경제 ⑥ 지역개발, ⑦ 문화가족 ⑧ 환경산림, ⑨ 안전관리	③ 일반행정, ④ 사회복지 ⑤ 보건위생, ⑥ 지역경제 ⑦ 지역개발, ⑧ 문화가족 ⑨ 환경산림, ⑩ 안전관리, ⑪ 지방규제혁신(추가)

3 공공기관 평가·운영

- (국가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 평가, 예산·인력 관리제도 개선
 - '17년은 평가지표에 일자리 가점 항목(10점)*을 신설하고, '18년에 일자리 지표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 * 신규채용 확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전환실적, 혁신적 신규사업 시행 등
 - * (현행) 경영관리 50점 중 6점 (12%) → (개선) 가점 10점 포함시 총 60점 중 16점 (27%)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노력에 따라 인력이 증가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

- '18년 편람 작성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생산성 등 관련 계량지표 수정 추진

○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 개정('18.1월)

○ 정원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정원 제도* 도입

*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처우개선분,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

- 탄력정원 도입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공공서비스 향상과 현장인력 충원 필요시 수시증원 협의를 적극 활용하되, 경영효율성 및 기존인력의 생산성 제고노력 지속

□ (지방 공기업) 일자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 구축

○ '일자리 확대'를 별도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배점 상향

* 세부 지표: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 여부 등 (0.6점→5점 내외)
(일자리 질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 (1점→5점 내외)

○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 완화

참고 1

세부 액션플랜

세부 과제	일정	부처
①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강화		
① (일자리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정책 콘트론타워		
▶ 일자리 정책 수립·조정·협의·실천	지속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 신문고 운영	지속	"
② (정부·지자체 조직)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		
▶ 일자리 전담지원체계 구축	'17.12	행안부
▶ 지자체 일자리 조직체계 구축	'17.12	"
③ (법제)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		
▶ '국정과제 입법계획'과 '정부입법계획' 연계 관리	'17.12	법제처
▶ 일자리 입법 사전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등 적극 지원	'18.6	"
▶ 학력차별 법령 일괄정비	'17.12	"
▶ 고용 영향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 평가 실시	'17.12	고용부
④ (통계) 통계기반 일자리 정책·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자리 상황판 설치·운영	지속	고용부
▶ 세분화된 일자리 통계 개발·개선	'18.12	통계청
▶ 지역통계지표 서비스 확대·개편	'18.12	"
▶ 고용 질 지표 체계(안) 마련	'17.12	"
⑤ (홍보) 일자리 체감형 홍보 확산		
▶ 일자리 정책 슬로건 노출	지속	공통
▶ 일자리 홍보협의회 운영	지속	문체부
▶ 공익광고 활용 일자리 정책 홍보	지속	일자리위원회
② 일자리중심 정부지원 체계 개편		
①-1 (예산 사전평가편성단계) 고용영향평가 강화		
▶ 평가대상 예산사업 확대 및 평가결과-예산편성 연계	'18.8	기재부
▶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 개선되도록 제도화	'18.12	고용부
①-2 (예산 사전평가편성단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중앙·지자체 일자리사업 조정기능 강화	'18.3	고용부
▶ 국민들이 쉽게 참여토록 일자리사업 개편·운영	'18.1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18.6	"

①-3 (예산 사전평가·편성단계)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 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강화	'17.12	기재부	
▶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 신설	'17.12	행안부	
▶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일자리 창출효과 지표 추가	'17.12	기재부	
①-4 (예산 사전평가·편성단계)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일자리사업예산 우선·집중 편성	'17.12	행안부	
▶ 지특회계, 보통교부세 등 배분시 일자리 성과 반영	'18.4	기재부 행안부	
①-5 (예산 집행단계) 위탁민자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			
▶ 재정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시 급여수준, 교육계획을 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실시	지속	공통	
▶ 민자사업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추가	지속	공통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선정시 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확대	'17.12	공통	
①-6 (예산 집행단계)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우수 기업 우선 지원			
▶ (R&D) 지원기업 선정지표에 일자리 비중 확대	'17.12	과기 정통부	
▶ (창업)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창출계획 평가 및 일자리 우수 창업기업에 후속 지원 강화	'17.12	중기부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지표에 일자리 비중 확대 및 차등 지원	'17.12	"	
▶ (기타 재정사업) 환경, 해양, 농식품 등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지표 도입	'17.12	환경·해수 농림부 등	
② 세제			
▶ 일자리창출 기업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지원제도 재설계	'17.12	기재부	
▶ 고용 관련 조세특례 신설·일몰 연장 및 지방세 감면시 고용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17.12	기재부 행안부	
▶ 일자리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17.12	국세청	
▶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관세 관련 세정지원 5대 패키지 제공	'17.11	관세청	
▶ 회생지원 징수유예제도 도입	'18.5	관세청	
③ 투자유치제도			
▶ 유사 인센티브 제도 단일 통합 및 고용효과 중심으로 개편	'17.12	산업부	
▶ 혁신도시중심으로 신지역성장거점 구축	'17.12	"	

④ 정책금융			
▶ 수은 무보 등 무역금융보조에 일자리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도입	'17.12	기재부 산업부	
▶ 중진공·신보·기보 등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지원요건 완화	'18.1	중기부 금융위	
▶ 국책은행 경영평가시 일자리기업지원 실적 추가	'17.9	금융위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17.9	한은	
⑤ 조달·공공계약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위한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	'18.3	기재부 조달청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기준 제정시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 촉진 기업 가산점 부여	'17.9	행안부	
▶ 상습고액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입찰 감점 부여 및 입찰 참여 제한	'18.6	기재부 조달청	
▶ 예정가격 산정시 시중노임 단가 적용 의무화 및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 확대	'17.11	기재부	
▶ 근로환경 개선 기업 용역입찰 가점 확대	'17.11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최저가 낙찰제 폐지	'17.8	조달청	
▶ 소규모 조달 일반제품 적격심사 낙찰하한 상향 조정	'17.5	조달청	
▶ 소규모 조달 실적제한기준 폐지	'17.11	기재부	
▶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 본격 시행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 사업 확대	'17.12	기재부 국토부	
⑥ 인·허가제도 등			
▶ 특허, 허가, 인가시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및 이행실적 점검	지속	공통	
▶ 공공택지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17.12	국토부	
▶ 일자리 사업 지방채 발행 한도의 관리	'17.12	행안부	
⑦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 '고용탑'(신설) 수여 및 인센티브 부여	'18.3	고용부	
▶ 일자리 창출·질제고 기여 기업인 포상·홍보	연중	고용부	
▶ 일자리 창출 우수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18.3	인사처	
⑧ 일자리중심 기관 평가·운영			
①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 대목 강화	'17.9	국조실	
▶ '일자리과제평가'를 통한 정책 이행 집중 관리	지속	일자리촉 국조실	
②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합동평가 일자리창출 평가 강화	'17.9	행안부	
③ 공공기관 평가·운영			
▶ (중앙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인력 관리제도 개선	'17.12	기재부	
▶ (지방공기업) 일자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 구축	'17.12	행안부	

참고 2

부처별 이행과제

부 처	이행 과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 위탁·민자·공모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요소 반영 ▶ 특허·허가, 인가, 개별 사업 지원시 일자리 우수기업 최대 우대 ▶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맞춤형 홍보 확산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편성 및 세제지원제도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 ▶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인력관리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지원기업 선정시 일자리 지표 비중 확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조직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또는 신설 ▶ 지자체 일자리 예산 확대 및 지방세 제도 개편 ▶ 지자체 합동평가 일자리 창출평가 강화 ▶ 지방공기업 일자리 중심 경영평가 체계 구축 ▶ 일자리에 기여한 기업인, 국민,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우수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투자유치제도 개편 ▶ 무역금융·보증에 일자리우수기업 전용 금융상품 신규 도입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영향평가 대폭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고용탑'(신설) 수여 및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내 업무·상업 용도의 토지 등 분양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국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업무평가에 일자리 평가 대폭 강화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우수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신청기준 완화 등 ▶ 국책은행 경영평가지 일자리 기업 지원 실적 추가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자리 우수기업 위주로 개편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관련 입법 신속 추진 지원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관세 관련 세정 지원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기반 일자리 정책·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입찰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